실크로드
리어카, FRT | 320×126×402cm | 2020

살았고 살고 살려는 세속의 고귀함

김재환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무의미한 것들의 아름다움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한다. 그렇다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미술관과 미술관 전시에 대한 생각/태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다음 질문으로 환원된다. 2020년 현재 경남도립미술관 전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얼까? 즉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보수적이고 규범적이고 관례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남미술의 역사를 작가, 시대, 주제 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 정도일 것이다. 좀 더 확장해보면 경남의 역사성과 미술이 만나 지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동시대 미술 Contemporary Art 영역으로 발을 담그면 이러한 역사성이 차이와 모순이 혼재하는 현재성과 얽히고설켜 혼종의 상태를 구현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코로나19로 맞이한 팬데믹을 생각하면 여러 어려움으로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이들에게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살어리 살어리랏다》는 이 중 어느 맥락에서 의미가 있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팬데믹 이후 '예술의 역할'이라는 맥락이다. 물론 최정화 작가를 초대해 《살어리 살어리랏다》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이어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이후 전시가 개막하는 순간까지 이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술의 역할' 아니 '우리의 역할'에 대해 최정화 작가와 미술관은 꽤 진지하게 고민을 나눴다. 이는 단순히 대중의 취향을 반영해 흥미롭고 재밌는 전시를 만드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흥미롭고 재미있되 이전에 몰랐던 어떤 것의 발견에서 감탄을 자아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흘리고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는 것 말이다. 그래서 그는 예술을 새로운 것이 아닌 색다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술 행위란 누구나 알고 웃으며 즐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눈이 번적' 뜨이고 '입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 자신의 예술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최정화의 작업이 일상적이면서 다채롭고, 친근하면서 흥겹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군가는 최정화의 작업을 대중성과 상업성을 염두에 둔 대단히 계산적인 것이라 비판하지만, 그는 이러한 비판을 간단히 흘려버리고 스스로 '미끼요 삐끼'라고 선언한다. 그래서 그의 작업 역시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는 동시대 미술과 맥이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고 불온함이 내재된 동시대 미술과는 사실 결을 달리한다.

그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전시에 참여하기로 결심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건 예술의 역할 따위가 아니었다. '최정화의 작업'을 통해 '경남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경남 곳곳을 답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제약이 많기는 했지만, 미술관은 최정화 작가와 함께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열 번 넘게 답사를 진행하며 마산, 진해, 하동, 구례, 남해, 거제, 진주, 양산, 창녕, 김해, 가덕도 등을 찾아다녔고 각 지역의 시장과 유휴공간은 물론 역사적 장소를 탐방했다. 그렇게 생선상자와 파라솔을 만나고(마산수협공판장), 과일 리어카를 만나고(마산청과시장), 고비(조선시대 편지함)를

만났다. 새롭게 탄생하는 남해각과 과거의 영광을 품에 안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부곡하와이를 이야기하며 막걸리를 한 잔 걸치기도 했다. 고대 해양 강국이었던 가야의 역사를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장님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행운도 얻었다. 물론 '모아모아' 프로젝트와 '기억채집' 프로젝트를 통해 경남 도민의 삶(식기)과 역사(사진)를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도 감사한 일이었다.

플라스틱 작가로 비즈니스 작가로 불리던 그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의 삶에 귀 기울이고 그 삶의 흔적들을 전시실로 불러들여 너와 나를 만나게 하는 샤먼이 되었다. 미끼와 삐끼는 그래서 단순한 홀림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히는 마중물이다. 동시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소중한 무엇으로 변하도록 하는 정화수이기도 하다. 그의 이런 태도는 술자리에서 늘 이야기하는 기시 마사히코의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세계 도처에 굴러다니는 무의미한 단편에 대한 기록인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누구에게도 숨겨 놓지 않았지만,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서사는 아름답다.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고독하며, 철저하게 방대한 훌륭한 서사는 하나하나의 서사가 무의함으로써 아름다울 수 있다."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래서 무의미한 것들이 아름다워지는 순간을 만들어 내는 것. 아마도 이것이 최정화가 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당사자인 그는 이런 해석에 그다지 관심도 없겠지만, 최정화는 생활 영역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여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는 미술의 고고함을 파괴하고 세속의 고귀함/아름다움을 펼쳐놓는 사람이다.

당신의 빛, 당신의 이야기

전시는 미술관 야외에서 흥얼거리며 시작한다. 실내 전시가 열리기 한 달 전 미술관 앞마당에 높이 24미터의 탑 〈인류세〉가 설치되었다. 2020년 7월 한 달 동안 모은 생활식기와 최정화 가 수집한 대형 주방기기의 어우러짐으로 완성된 탑이다. 〈인류세〉는 경남 곳곳을 여행하고 돌아온 〈과일풍선〉과 만나 전시 열림을 천지에 알렸다. 형형색색의 초대형 과일풍선은 〈인류세〉의 상승하는 힘과 청명한 가을 하늘의 광활함, 그리고 땅(잔디)의 기운을 한 데 엮어 《살어리 살어리랏다》를 신명나는 마당으로 탈바꿈시켰다.

앞마당을 지나 미술관 안으로 들어서면 옛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오래된 흑백사진이 로비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1930년대 천주교식 혼례부터 1940년대 일제 징용 환송 기념사진, 1950년대 집 앞마당에서 찍은 가족사진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념사진까지 한국전쟁 전후 경남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들이다. 그 앞에는 초대형 스티로폼 부표로 만들어진 〈상남동 고인돌〉이 자리 잡고 있다. 오랫동안 바다를 떠돌며 다듬어진 스티로폼은 수 만 년 비와 바람으로 풍화된 고인돌과 그 모양이 흡사해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렇게 수만 년의 인류 역사가 스티로폼(상남동 고인돌)으로 드러나고 백 년의 경남 근대사가 대형 흑백 사진을 통해 드러난다. 생활이 유물이 되어 역사의 한자리를 꿰차고 예술의 자리를 대체하는 순간이다.

1전시실 입구 옆에 설치된 전시 타이틀 '살어리 살어리랏다'는 최정화가 직접 쓴 글씨를 본 떠 만들었다. 이 글씨들은 그가 즐겨 사용하는 조화(造花)로 둘러싸여 있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 그는 진짜 꽃과 가짜 꽃 중 무엇이 일회용인지 묻곤 했다. 플라스틱은 일회용이고 싸구려며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판단도 진짜 꽃 가짜 꽃을 생각해보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진짜보다 더 오랫동안 더 화려하게 관람객을 맞이하는 '살어리 살어리랏다' 꽃은 삶의 의지를 고양하는 것이 대단한 무엇이 아닌 평범한 어떤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1전시실 입구 정면에 설치된 〈고비〉는 창원에 계신 김경수 민속당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전국의 골동품상에 잠들어 있던 '고비'를 수집해 만들어졌다. 고비는 편지 따위를 꽂아두는 옛 나무 상자를 가리키는데 집안에 설치된 우편함으로 나무로 된 SNS라 할 수 있다. 그 앞으로 스티로폼 탑 〈석시기대〉, 양은 대야와 놋그릇으로 만들어진 〈대장군〉, 건축현장의 철근으로 쌓아 올린 〈철기시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전시 공간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우리 이야기(편지, 메시지, 텍스트, 목소리 등)를 전달하는 탑이며 안테나다. 이것은 보편적 인류의 역사와 하늘을 매개하는 안테나로 미술관 앞마당에 우뚝 서 있는 〈인류세〉와 자연스레 이어진다. 이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은 우연찮게 개미다. 〈인류세〉가 설치되던 날 어렵게 작업을 마무리하고 숨을 돌리고 있을 때 개미 한 마리가 〈인류세〉 탑을 빙빙 돌고 있었다. 바람을 타고 날아왔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으나, 개미는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리고 있었다. 앞을 보고 아무리 달려도 원을 따라 빙글빙글 돌 뿐 당최 탈출로가 보이지 않는다. 현장에 있던 촬영팀이 이 상황을 재빠르게 포착한 덕분에 우리는 〈고비〉와 함께 전시실 입구에서 이 영상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개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지만, 이 안타까움은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춘다. 지구의 관점에서 우주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바로 한 마리 개미이다. 그렇다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 모두가 개미이고 모두가 먼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살아 있는 동안 신명나게 살고 가는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누군가와 만나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그러길 바란다. 최정화 역시 〈인류세〉와 〈고비〉와 〈대장군〉의 힘을 빌려 외로웠고 외롭고 외로울 당신과 접속하려 마당을 연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성계〉와 마주하게 된다. 창원, 거제 등의 남해안 부표와 동해, 서해의 부표를 모아 만든 거대한 구조물이다. 거대한 구조물로 변신한 해양 쓰레기에 우리는 순간 뒷걸음치지만, 주변에 펼쳐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이내 웃음을 머금고 공간 안으로 쭈욱 빨려 들어간다. 마당이 펼쳐진 것이다. 이 마당은 알록달록 반짝반짝 아른아른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해안으로 밀려와 쓰레기가 된 〈폐선〉과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 불가사리, 사슴, 새, 사람 등이 네온으로 매달려 있다. 마산수협공판장의 역사이자 DNA인 '어상자'가 전시실 천장까지 쌓여 있고, 마산청과시장 도매상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한 손수레들이 마당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다. 그리고 이 수레 위에는 깨진 거울, 양다리 디딜방아, 한옥 건물의 주두, 메주틀, 옛날 자수 베개, 4-50년은 족히 됨직한 대나무 바구니 등이 놓여 있다. 전혀 다른 장소와 시간, 다른 용도로 살아왔던 이질적인 것들이 최정화가 펼쳐놓은 마당에 한데 모인 것이다.

수많은 물건들이 섞이고 엮이고 얽히면서 중첩중첩중첩 반복반복반복하며, 신명이 절로 나는 무대가 펼쳐진다. 이 무대에 오른 당신은 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어리 살어리랏다' 잔치판을 거닐게 된다. 한편 이 잔치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 전시실 벽면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모아모아 프로젝트', '기억채집 프로젝트' 등 《살어리 살어리랏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분들의 〈천 개의 이름〉이 그것이다. 마산에는 여전히 손수 오버로크 재봉틀을 움직여 명찰을 만드는 장인이 여럿 계신데 이번 작업은 그중 가장 실력이 뛰어나신 백만조님의 도움을 받았다. 무지개색으로 가득한 〈천 개의 이름〉은 이 마당에서 우리 모두가 주인공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말 그대로 작품이 되었다. 이런 의미의 작품은 1전시실을 나가 2층으로 올라가는 장애인 램프 벽면에서도 만날 수 있다. "5년 전 저희 가족의 첫 캠핑을 함께했던 냄비입니다. 냄비에 추억이 가득 담겨 있어요."(김다올), "자다가 태워 먹은 냄비"(손경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따뜻한 가정을 이루고자 모았던 살림살이와/초등 입학하는 아이의 첫 스텐물통"(오승아), "엄마가 이걸로 만들어준 요리는 다 맛있어요."(김그림), "집에서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던 냄비입니다."(배은애) 그 외 많은 분들이 생활식기를 기증하며 남겨주신 소중한 글귀들을 만날 수 있다. 사소하고 단편적인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더 큰 감동을 나눌 수 있음이 이 길에서 확인된다.

사소하고 단편적인 것들의 반란

"눈이 부시게 / 텅 빈 / 내가 먹던, 너를 먹이던 그릇 / 네게 힘을 나누어주고 / 남과 더불어 살라는 / 그 밥 그릇 / 땅과 하늘 사이 /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 먹고 먹이는 일을 돌보시는 / 어머니 / 당신에게 이 빛을 바칩니다."
(2018. 8. 22)

5-2

현장답사
2020. 4. 22. 8. 8

2층 2전시실 벽면에 최정화 작가가 직접 쓴 글이다. 사소하고 단편적인 것들의 기억과 흔적이 주로 머무는 방의 시작을 알리는 글귀다. 밥그릇과 밥상 그리고 생활식기가 어머니를 연상케 해 적절한 글귀로 보이지만, 이곳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묘하게 숨어 있는 다른 말들이 드러나는 장소다. 여기는 박물관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박물관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지는 않다. 당장 입구에서 삐끼 역할을 하는 것이 냄비, 솥, 프라이팬, 찜통 등이다. 뫼비우스 띠처럼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고리 형태의 〈인피티니〉는 무수히 많은 사소하고 파편적인 우리 삶의 날 것을 대변한다. 사진도 마찬가지다. 남해 사촌해수욕장에서, 통영 마리나 리조트 한쪽 구석에 있는 선착장에서, 통도 환타지아에서, 창원시청 광장에서, 아빠와 눈 오는 날 밤에, 진해 벚꽃나무 앞에서, 용지문화공원에서, 마산운동장 롯데자이언트 야구단 버스 앞에서, 진해 군항제 아빠와 함께, 동생들이 태어나기 전 나홀로 아빠 엄마와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서 등에서 찍은 수십 개의 사진이 전시실 입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밥그릇이 역사가 되고 예술이 되는 듯하다.

안으로 들어서면 민속 박물관에서 봄직한 오래된 교과서, 대한민국 전도, 공익 포스터, 달력 등이 걸려 있다. '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구나.' 생각이 절로 드는 물건들이다. 아카이브 전시의 물품도 아니면서 전시 작품처럼 걸려 있는 이것들은 그래서 사실 정체불명이다. 좀 더 둘러보자. 박물관 유리 케이스처럼 작품을 소중히 모셔 놓은 공간도 있다. 여기에는 소풍사진, 액자, 상장, 표창장, 졸업장, 전역증, 옛날 신분증, 청첩장 등 일상의 각종 기록들이 진열되어 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들을 담고 있는 기록물들이지만 이것이 왜 여기에 있는지는 사실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른 한쪽 유리케이스는 더 그렇다. 한 곳에는 조선 중엽 즈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곡두 인형이 진열되어 있다. 나무로 만든 흔한 곡두 인형이 아닌 철로 만든 귀한 인형이다. 그 옆에는 차사발 두 개가 진열되어 있는데 하나는 김해에서 만들어진 차사발이고 다른 하나는 하동 차사발이다. 모두 조선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벽면과 유리 케이스에 진열된 물건들을 보면 이것이 작품인지, 유물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물건인지 가늠이 안 된다. 전시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전시실 중앙에 놓인 조형물을 보면 어슴푸레 감이 온다. 〈꽃탑〉이라 불리는 작품이 그것이다. 아주 오래된 거대한 나무에 닳고 닳은 빗자루가 꽃꽂이처럼 서 있다. 철로 된 좌대 위에 유물인 듯 놓여 있지만 쓸모없는 빗자루다. 그래서 이곳은 박물관이되 박물관이 아니고, 전시실이되 전시실이 아닌 어떤 곳이 된다. 예술이되 예술이 아닌 곳. 무엇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고 즐기길 바라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누구나 예술을 이미 알고 있다.'가 성립되려 하는 곳이다. 빨갛고, 절단되고, 구멍이 숭숭 뚫린 채로 놓여 있는 비너스 상을 그려보는 '미술실기대회'는 그래서 입시미술을 제도미술을 제도미술관을 전복하려는 퍼포먼스다.

무이무이(無異無二), 너없는 나도 없고 나없는 너도 없다.

3전시실은 최정화가 오랫동안 모아온 고가구들과 현대적 감각의 물건들이 서로 결합해 새로운 유물이자 작품으로 탄생한 현장이다. 오래된 나무에서 느껴지는 예스러운 냄새와 반짝반짝 알록달록 빛나는 멋스러운 오브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다른 존재들이 신기하리만치 잘 어울림을 목격하게 된다. 이곳 역시 작품을 보는 곳이 아니라 공간을 즐기는 곳이다. 최정화의 사물들은 앉는 의자가 되고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고 인증샷의 배경이 된다. 그래서 그는 이곳을 처음에는 생활사 박물관이라 했다가 설치를 마친 다음 카페라고 명명했다. 무이무이 카페의 탄생이다. 차를 마시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공간이다. 안타깝게도 미술관의 현실적인 문제로 차를 제공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관념적으로는 어울리지 않을 것들이지만 눈앞에 놓인 구체적인 사물은 직관적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엇과 무엇은 다르다.', '이것과 저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은 기성의 사회에서 물려받은 선입견에 불과하다. 다르다고 여기는 것들과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뜻밖에도 공감의 영역으로 발을 들이게 되는 경우를 목격한다. 여행이 그러하다. 낯선 장소에서 이질적인 사람과 만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벅차오름을 경험하곤 한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섞이고 이곳과 저곳의 장소가 만날 때 낯설면서도 즐거운 어떤 감각이 살아난다. 그래서 최정화는 "저것과 이것이 같이 만나서 함께 보이는 것." "한정식의 한상차림처럼 스스로 골라 먹으며 즐기는 곳."이 바로 이곳 무이무이 카페라고 이야기한다. 다르지 않고 둘이 아니라는 뜻의 무이무이는 그래서 "너없는 나도 없고 나없는 너도 없다."로 바뀐다.

최정화는 예술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방에 펼쳐진 무이무이는 곳곳에 반복 설치된 장치에 의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다. '1,1,2,3,5,8,13,21…'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네온이 그것이다. 이 네온의 숫자는 전시실에 반복해서 나타난다. 일명 피보나치 수열이라 불리는 이 숫자들은 토끼 번식이라는 가상 실험에서 출발한다. 우연히도 그 증가비율이 황금비율과 흡사해 화제가 된 이 수열의 핵심은 사실 시작에 있는 '1,1'이다. 2+3이 5가 되고 3+5가 8이 되기 위한 전제는 2를 가능하게 하는 1+1인 것이다. 그래서 '너없는 나도 없고 나없는 너도 없다.'라는 최정화의 명제를 수식화한 것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역시 '1,1'에서 시작한 것이 아닐까. 쌓이고 섞이고 엮이고 스며드는 그 숱한 시간과 과정도 네가 없고 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너와 나는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에 모두 대응 가능하다. 인생은 결국 홀로서기라고 말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외로움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1+1의 결핍의 파생이다. 최정화가 이것과 저것의 매개로서 '샤먼'을 자처하는 것도 1이 다른 1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 1들은 2가 되는 순간 알아서 3이 되고 5가 되고 8이 되며 확산한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샤먼이 된다. 《살어리 살어리랏다》는 어느 순간 인스타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재생산되고 해시태그를 통해 새로운 전시공간으로 재탄생한다. 휴대폰도 인터넷도 사용하지 않는 최정화이지만 이러한 또 다른 펼침에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샤먼'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마산청과시장에서 수십 년간 짐을 옮기며 살아온 수레는 경남도립미술관 전시실에서 다시 살고, 온라인 공간에서 또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사소하고 파편적인 모든 것들이 살았고 살고 살아갈 것이다.

오후 4시 개문